현안리포트 05-046

일-태국 FTA 체결과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

2005.11

kotra

통상전략팀

<요 약>

- 일-태국 간 FTA 협상이 '05.9.1일자로 타결, '06년 중 발효 예정
 - 일본은 태국에 대해서 섬유, 석유화학, 농산물 등에 대해 즉시 관세를 철폐하는 등 품목별 시장개방일정을 발표
 - 태국은 일본에 대해서 자동차, 자동차부품, 철강 등에 대해 관세철폐 등 품목별 시장개방일정을 발표

- 일본시장보다 태국시장의 개방효과가 더 클 것으로 분석
 - 우리나라 역시 일본시장에서 보다는 태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 불리한 요인이 더 많아질 전망
 - 이는 일본이 기존 무관세 또는 저관세를 운영하고 있어 관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거의 없는 반면,
 - 태국시장에서는 자동차, 철강, 가전 등 일본의 경쟁력 우위제품이 무관세 혹은 특혜관세로 유입될 예정

- 일-태국 FTA가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태국 시장에서 일본과의 경쟁에서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철강, 자동차, 자동차부품, 가전(TV, VCR 등)에서 일본에 비해 경쟁력 약화 전망
 - 컴퓨터, 반도체, 휴대폰 등 IT제품은 기존 무관세에 따라, 금번 FTA 효과는 미미

- 일본은 태국과의 FTA를 통해 인도 자동차시장 우회진출을 모색하는 등 FTA를 통한 아시아의 경제패권 장악과 중국경제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 태국 역시 금번 FTA를 통해 일본기업의 대태국 투자를 유도하여 자국 산업경쟁력 제고 및 구조조정을 노리고 있음.

< 목 차 >

I. 일-태국 FTA 협정 내용	1
II.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 경쟁여건 변화	6
1. 종합평가	6
2.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9
3. 태국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15
III. 시사점	18

I. 일-태국 FTA 협정 내용

- 일본과 태국 FTA 협정은 '05년 11월 현재, 기본골자에 대해서는 양국간 합의('05.9.1)가 이루어졌지만 세부항목을 놓고 조문 작성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임.
- '06년 초까지 조문을 완성, 양자 서명 후 '06년 6월 국회에서 심의·가결을 거쳐 '06년 8월경 공식 발효가 예상되고 있음.
- 양국간 FTA가 발효되면, 전체 359억 불(2004년 기준) 규모의 교역량 중 90%에 해당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과 철강, 주요 농수산물 등 7000여개 품목의 수입관세가 인하

<양국간 주요 합의 사항>

품 목	신규적용 관세율	현행 관세율	발효 시기
태국의 대일 시장개방			
자동차(3000cc이하)	60%	80%	2009(점진적)
자동차부품	0%	10~40%	2011(점진적)
철강 (태국 내 생산 않는 품목)	0%	5~10%	즉시
철강 (열연제품 등 민감품목)	0%	5~10%	8~10년 후 점진적
일본의 대태국 시장개방			
가공 닭	3%	3%	즉시
어류, 채소류, 과일류	0%	5~10%	즉시
가공 새우	0%	5.3%	즉시
통조림 과일 및 주스	0%	쿼터적용	즉시

자료 : Thai Government House

□ 양국간 FTA 협상 시 참여하게 대립했던 품목은 자동차, 철강, 농산물 등으로 시장개방의 폭과 시기에 대해 최종협상까지 조율이 필요할 만큼 이견이 대립되었음.

○ 자동차

- 태국 측은 자동차 전 품목에 대한 예외조치를 주장
- 일본 측은 완성차의 태국시장 진출을 포기할 수 없는 입장 되풀이

○ 철강

- 일본 측은 태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자동차 산업용 열연강판에 대한 시장개방 및 관세인하 요구
- 태국 측은 일본의 요구 수용 거부
 - 태국의 대일 철강수입 규모는 전체의 13%에 이르고 있음.
 - 일본을 비롯한 14개국('05.4월기준)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바, 세수(약 55억바트)를 포기할 수 없는 상태

○ 농산물

- 태국 측은 일본의 대폭적인 농산물 시장개방을 요구

□ 관세 즉시 철폐 품목

○ 일본의 관세철폐

- 섬유 및 의복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 잡화류 : 관세 즉시 철폐 (5개 품목)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관세 즉시 철폐
- 농산품
 - 망고, 망고스틴, 두리안, 파파야, 람부탄, 오크라, 야자나무 열매
 - 조제한 혼합과일, 과일샐러드 및 과일컵테일
- 임산물 : 합판, 파티클보드, 섬유판을 제외한 임산품
- 수산물 : 새우, 새우 조제품 관세 즉시 철폐

○ 태국의 관세철폐

- 철강·철강제품 : 철강제품 일부 품목
- 농산품 : 사과, 배, 복숭아
- 수산물 : 청어, 대구

□ 관세 점진 철폐 품목

○ 일본의 관세철폐

- 석유 및 석유화학제품 : 일부 품목의 관세를 매년 단계적으로 인하, 협정발효 5년 후 철폐
- 농산품
 - 바나나 : 할당관세 적용 1년차 4,000톤 → 5년차 8,000톤 이하 무관세
 - 파인애플 : 할당관세 적용. 1년차 100톤 → 5년차 300톤 이하 무관세
 - 야채 : 5~10년 이내 관세 철폐

- 닭고기 조제품 : 5년간 6%에서 3%까지 관세 인하
- 돼지고기 조제품 : 할당관세 적용. 1,200톤 이하 20% 관세
인하
- 미강유 : 5년간 55.5% 관세 인하
- 애완동물음식 : 10년 이내 관세 철폐
- 당밀 : 3년차에 할당관세 적용. 3년차 4,000톤 → 4년차
5,000톤 초과분에 대해 50%의 관세 인하
- 전분 유도체 : 할당관세 적용. 20만톤 이하 무관세

- 수산물

- 생선토막, 해파리, 생·냉동 뼈오징어 : 5년 이내 관세 철폐
- 참치 조제품, 가다랑어 조제품, 게 조제품 : 5년 이내 관세 철폐

- 임산물

- 파티클보드, 섬유판 : 10년 이내 관세 철폐

○ 태국의 관세철폐

- 자동차

- 3000cc 초과 완성차 : 현재 80%에서 매년 단계적으로 인
하해 2009년까지 60%로 점진 삭감. 이후 2009년에 재협의
- 3000cc 이하 완성차에 대해서는 협정 서명 전 재협의

- 자동차부품

- 관세 20% 초과 품목은 관세율을 협정발효 시점에 20%로
인하. 20%를 유지하며 2011년 완전 철폐
- 관세 20% 이하 품목은 현행 관세율 유지. 2011년 완전 철폐
- 민감품목(5개품목)에 대해서는 현행 관세율을 유지하며
2013년 철폐

- 철강 · 철강제품
 - 철강제품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늦어도 협정 발효년도로부터 10년 이내에 철폐
 - 열연코일 및 강판 일부에 대해서는 할당관세 적용, 관세할당 수량은 매년 공동 검토

- 수산물
 - 황다랑어, 가다랑어, 정어리 : 5년 이내 관세 철폐

□ 제외 또는 재협상의 대상 품목

- 일본측 요구사항 : 고등어, 담배, 생사, 계란, 계란노른자, 지정된 생선
- 태국측 요구사항 : 쌀, 보리, 생 · 냉동 · 냉장 소고기 및 돼지고기, 정제하지 않은 설탕(조당), 정제당, 전분, 파인애플 통조림, 합판, 수산물 수입쿼터품목, 가다랑어, 참치, 소 · 돼지고기 조제품 대부분, 지정 유제품

Ⅱ. 주요 품목별 우리 수출 경쟁여건 변화

1. 종합평가

- 상품교역 분야에서만 볼 때 일본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태국에 비해 많은 것으로 평가
- 일본은 공산품 관세가 0%에 가까워 태국의 FTA 체결에 따른 관세인하 혜택은 매우 제한적
- 일본은 자동차, 철강 등 자국 산업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서 태국시장 개방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
 - 특히 자동차 분야는 태국 측의 예외품목 인정 요구에도 불구하고, 3000cc 이상 완성차에 대한 관세율을 큰 폭으로 낮추기로 합의
 - 3000cc 이하 완성차에 대해서도 추후 협의의 가능성을 남겨 추가 관세인하가 가능할 전망
 - 또한 태국의 대일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율도 큰 폭으로 인하
- 일본 자동차 업계는 태국에서 생산되는 일본 완성차의 경쟁력을 크게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
 - 생산거점으로서의 태국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져 투자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짐
 - 아울러 완성차의 대태국 직접수출 계기를 마련

- 자동차부품 수출 역시 경쟁국에 비해 낮은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미국 및 유럽 자동차업계는 일본에 대한 특혜가 자국 업계에는 불리하다며 반발
 - 美 포드사는 일-태국 FTA 협정의 내용에 불만을 표시하며, 향후 태국 투자를 재고하겠다고 표명
 - 3000cc 이상의 일본산 자동차의 수입관세가 인하되면, 투자유인책으로 낮은 관세를 적용받고 있는 포드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
- 한편, 태국 내에서는 동 FTA를 통해 매년 90억불에 달하는 대일 무역역조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것으로 알려짐

※ 양국간 교역현황 ('04년 기준)

- ▶ 태국은 일본의 6위 수출대상국 : 203억불
11위 수입대상국 : 141억불
- ▶ 일본은 태국의 2위 수출대상국 : 135억불
1위 수입대상국 : 225억불

- 우리나라는 전반적으로 일본시장보다는 태국시장에서 일본제품과의 경쟁이 더욱 격화될 전망
- 태국시장에서 일본제품이 무관세로 얻는 이익만큼 국산 수출품의 경쟁력이 저하될 전망

- 품목별로는 태국시장에서 철강, 자동차부품, 가전 등에서 일본제품에 비해 경쟁력이 악화될 것으로 전망
 - 철강의 경우, 일본의 대태국 수출 시 기존 5~10%의 관세율이 즉시 철폐되거나, 일부는 8~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되므로 우리나라의 철강은 일본과의 가격경쟁에서 크게 불리해짐
 - 자동차부품은 현재 10~40% 수준에서 적용되는 태국의 수입 관세가 일본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되거나 인하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 예상
 - TV, VCR 등 일부 가전 역시 일본에 비해 경쟁에서 불리
 - 우리나라는 태국 자동차 시장 진출에 더 큰 진입장벽을 맞게 되었음.
 - 현재 태국 자동차 시장의 90% 이상을 일본이 장악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동차의 진출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음.
 - 금번 FTA를 통해 일본은 3000cc 이상의 완성차에 대해 대폭 낮아진 관세를 적용받게 되어 완성차 직수출 계기를 마련하였음.
 - 동 조치에 대해서는 미국, 유럽의 자동차 메이커들이 크게 불만을 드러낼 정도로 태국 시장 내에서 일본 자동차산업의 절대적인 우위를 보장하게 될 것으로 예상

2.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목 중 금번 FTA의 관세인하 및 폐지로 일본시장에서 영향을 받는 품목은 없음.
- 일본은 대부분의 공산품에 대해 영세율 또는 1~2%의 낮은 관세율을 운영하고 있는 바, FTA에 의한 역내외국의 관세율 차이는 매우 미미
- 따라서 우리나라는 일본시장에서 FTA 체결 대상국인 태국에 비해 관세에 의한 차별 및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 주요 품목별 일본시장에서의 경쟁여건

품목명	내용	주요경쟁국
컴퓨터	-현행 일본의 관세율상 GSP(일반특혜관세제도), WTO 협정세율 모두 무관세 -FTA 체결에 따른 영향 없음 -컴퓨터는 태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중 금액기준 1위. 수입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3% -협정발효이후에도 태국으로부터의 수입확대를 기대하기 어려움	중국, 미국, 싱가포르
반도체	-현행 무관세로 직접적인 영향 전무 -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전년대비 2.0% 증가. 수입시장 전체의 32.3% 차지(1위) -3세대 휴대전화, 디지털가전, 오락기기를 겨냥한 제품은 견실한 성장세 유지	태국, 필리핀, 중국

일반기계	-현행 무관세로 직접적인 영향 전무 -일본의 설비투자 회복추세에 따라 수입기계에 대한 수요도 증가 추세 -태국은 압축기, 방전가공기계 부문에서 강세	중국, 태국, 싱가포르
철강	-나사, 볼트에 대해 2.8%~3.3%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으나 태국은 GSP 적용국으로 해당사항 없음. 영향 없음	대만, 중국, 미국
자동차	-현행 무관세로 영향 없음 -태국으로부터의 자동차수입은 1500cc 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전년대비 1.0% 증가 4,568대	미국, 독일
자동차 부품	-현행 무관세로 영향 없음 -태국으로부터의 자동차부품 수입은 차체관련 부품 및 부속품 수입이 주류 -일본 자동차 기업은 원재료비 상승에 따른 비용삭감을 목표로 최적생산, 최적조달체제를 가동하고 있음. 태국도 주요 전략기지 가운데 하나임.	멕시코, 독일, 태국
가전	-현행 무관세로 영향 없음 -태국으로부터의 가전제품 수입은 TV, 에어컨, 냉장고가 대부분을 차지	말레이시아, 중국, 태국
산업용 전자	-현행 무관세로 영향 없음 -태국으로부터는 영상기기관련 전자 부품 수입이 다수	중국, 태국, 미국

□ 일본의 주요 바이어 동향

- 대부분의 품목에 일반특혜관세제도(GSP)가 적용되거나 현행 관세율이 0%로 일본의 주요 바이어 입장에서는 FTA 체결에 따른 기본 입장변화 없음.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대한수입품목)	의견
야마젠 산업시스템 (전자부품)	트랜스, 반도체	- FTA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 수입선 변경 및 품목변경을 현재로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음. - 전자부품은 대부분 중국으로부터 조달 하고 있는 실정
료우덴 상사 (미쯔비시 전기 자회사)	액정모니터, 반도체	- FTA의 세부내용에 대해 회사측에서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음. - 모회사인 미쯔비시 전기는 태국에 엘리베이터 공장을 설립해 엘리베이터 부품을 일부 수입하고 있음
도시바· 미쯔비시전기	계측기기	- 태국에는 가전 관련 공장이 많아 중전 기기 관련 부품 수입 실적은 미미한 편 임. 이에 따라 FTA 체결로 인해 한국 에서 태국으로의 수입선 전환은 고려하 지 않고 있음 - 산업용 모터와 발전기를 미쯔비시 전기와 합작으로 설립
토멘 (종합무역상사)	폴리프로필렌, 폴리에틸렌	- ASEAN 전역으로 FTA가 확대될 것으 로 전망하고 있음 - 태국이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로 부상 하는 것에 기대
소우지쯔	첨가제, 용접재료 등	- FTA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다고 판단

□ 기타 주요 산업 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

○ 對태국 자동차 산업 투자 활성화

- FTA 기본합의를 통해 일본의 자동차 관련 제조업 및 도소매, 수리, A/S 등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일정조건을 충족할 경우 50% 이상의 출자가 인정되게 되었고, 중국으로의 거점 집중화 현상 탈피 및 태국내 왕성한 수요에 힘입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의 투자 활성화가 예상되고 있음.
- 아세안 자유무역협정(AFTA) 체결로 2003년부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역내 수입관세가 5% 이하로 인하되고 2010년까지 관세를 완전 철폐하게 됨에 따라 일본 기업들은 부품 조달 측면에서의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해 ASEAN 각국에 분산되어있는 생산거점을 태국으로 집약시킬 것으로 전망.
- 일본의 자동차 생산거점, 전략기지로써 태국은 중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FTA 체결에 따른 관세 철폐로 자동차 부품 및 강판의 조달 비용이 낮아져 경쟁력이 상승할 것으로 기대.
- 태국의 2004년 자동차 총생산대수는 상용차를 중심으로 약 92만대로 이 중 90%를 일본기업의 현지 생산차가 차지하고 있음 (태국 정부, '아시아의 디트로이트'를 지향)
- 도요타 자동차는 신흥시장을 겨냥한 전략차 'IMV'의 생산거점을 태국으로 결정, 2007년까지 연간 약 55만대로 생산능력을 확장할 방침

- 태국에서 상용차 판매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이스즈 자동차도 총액 100억엔을 투자, 생산능력 증강 방침
- 경영재건중인 미쓰비시 자동차는 8월부터 태국에서 생산해 세계시장으로 수출하는 신형 픽업트럭의 성공여부에 기대를 걸고 있음
- 마쓰다의 경우 美 포드모터와의 합작사인 오토얼라이언스 타일랜드(AAT)에서 트럭을 생산하고 있음.
 - 일본에서 AAT로 직접 수출하는 부품도 있어 향후 관세 철폐 시 가격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

○ 철강업계 투자 활성화

- 현재 신일본제철의 태국 현지법인 SUS와 JFE 스틸의 현지법인 TCR이 각각 연간 생산량 100만톤에 육박하고 있는 한편, 연간 240만톤을 일본 내 냉연공장을 통해 수입하고 있는 실정
- FTA 체결에 따라 일본의 수출업체가 현지직접투자로 전환함으로써 투자가 활성화될 전망.
- 실적 기준으로 일본에서 태국으로의 강제 수출은 2004년 386만톤으로 전년비 7.5% 증가
 - 일본 강제수출의 10%에 해당하며 한국, 중국에 이어 3위
 - 태국의 전체 강제수입 중 60%가 일본산으로 도요타를 비롯한 일본 완성차 기업들의 증산계획에 따라 일본의 강제수요는 보다 확대될 전망

- 태국의 강재 메이커들은 공급력 향상을 모색하고 있지만 수요를 좀처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
- SUS는 일본밀(mill), 포스코 외에 현지기업인 사하비리야 스틸로부터, TCR은 JFE 스틸과 사하비리야로부터 핫코일을 각각 조달하고 있음
 - 그러나 수입 핫코일에 대한 반덤핑세 부과 및 수입량 규제 조치로 인해 수입량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
 -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SUS와 TCR은 태국산 핫코일의 사용비율을 끌어올릴 방침
- 태국내 핫코일 공급자인 사하비리야와 G스틸의 경우 품질이 향상되고는 있지만 일본기업의 기술력을 대체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FTA 체결을 계기로 신일본제철 및 JFE의 현지투자 확대가 예상됨.

3. 태국 시장에서의 경쟁여건 변화

□ 우리나라 제품 경쟁력 변화 전망

- '04년 기준 우리나라의 對태국 수출액은 32억불 수준이며 주요 수출 품목은 철강제품, 산업용 전자제품, 전자부품, 석유 화학제품, 가정용 전자제품 등
- 태국-일본 FTA가 체결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 중 일부 주요 품목의 수출 감소가 예상
 - 우리나라의 대태국 주요 수출품목은 휴대폰, 반도체, 전자제품 등이며 이들 제품에 대한 관세는 0%가 적용되고 있어,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우리나라의 대태국 수출의 큰 장애요인이 되지는 않을 전망
 - 10%내외의 관세가 적용되는 TV, VCR등 가전제품, 철강, 자동차부품 등의 수출 품목은 일본과 경쟁관계에 있기 때문에 수출 감소가 우려

□ 주요 품목별 태국시장에서의 경쟁여건

품목명	내 용	주요경쟁국
컴퓨터, 반도체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어 동 FTA에 따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전망	중국, 말레이시아, 미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철강	-민감품목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으며, 현 5~10%의 관세율을 일부는 즉시철폐, 일부는 8~10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철폐될 계획으로, 우리나라의 대태국 철강수출은 크게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	일본, 러시아, 중국

자동차	-기존 태국 자동차시장의 90%이상을 일본이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산업의 대태국 진출에 큰 진입장벽이 될 전망	일본
자동차 부품	-현 10~40%의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를 2011년까지 0%로 인하할 예정으로, 우리나라의 자동차부품 대태국 중장기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 예상	일본, 독일, 필리핀

□ 태국의 주요 바이어 동향

바이어명 (기업명)	취급품목 (대한수입품목)	의견
Hansol Electronics Thailand Co., Ltd.	반도체	품질이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생산원가 절감 차원에서 보다 저렴한 제품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나, 품질이 수준이하인 경우라면 한국산 수입 지속 계획
Pos-Thai Steel Service Center Co., Ltd.	열연강판, 냉연강판	우리나라 진출 업체로 FTA체결 후 가격경쟁력 약화가 우려되기는 하나, 판매가격을 인하하지는 않을 계획
Thai Summit Eastern Seaboard Autoparts Industry Co., Ltd.	자동차부품	품질에 이상이 없는 한, 일본으로 수입선 변경 계획
SKJ Metal Industries Co., Ltd.	철봉(steel bar)	보다 싼 가격에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업체로부터 수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FTA로 인해 일본이 저가로 제품을 공급한다면 수입선 변경 계획

□ 기타 주요산업 투자 확대에 미치는 영향

- 태국 농수산물 품목의 일본 수출 크게 확대 :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태국 정부는 농수산물 품목의 대일수출이 크게 확대되는 등 경제성장률이 1.68%p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
- 태국의 대일 철강 수입 크게 증가 : 철강산업계에서는 양국간 FTA로 인해 태국의 대일 무역적자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
 - 2004년 기준, 양국간 교역규모는 359억불이었으며, 이 중에서 태국의 대일 수입액은 224억불이고, 대일 수출액은 135억불로 89억불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한 바 있으며, 올 상반기에도 57억불의 대일 무역적자를 기록.
- 유럽계 자동차 태국 진출 업체의 투자규모 축소 전망 : 태국에 진출해 있는 외국계 자동차 현지 업체에서도 협상 결과에 대해 불만을 토로
 - 1997년 이후 10억불의 투자를 한 Ford(Thailand)사에서는 추가적인 투자에 대해서는 신중히 고려할 것이라고 하면서, FTA 발효 후 일본자동차의 경쟁우위로 인해 Ford사의 매출이 감소할 것을 우려
 - 기타 유럽계 자동차 진출업체들도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태국이 진정으로 Detroit of Asia가 되기를 바란다면 일본 자동차 업체에 주는 혜택을 재고해야한다고 주장

Ⅲ. 시사점

- 일본의 FTA 체결 주 목표는 경제회복과 부상하는 중국 견제
 - 중-아세안 FTA가 '05.7월 발효된 이후,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개별적 FTA 추진은 물론 아세안과의 FTA 추진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음.
 - FTA 협상에서도 취약 산업의 보호에 비중을 두는 관점에서 상대방 국가에 무엇을 팔 것인가 하는 공세적인 관점으로 기본전략을 변경

<일본의 국가별 FTA 추진현황>

구분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국가	싱가폴('02) 멕시코('04) 필리핀('06 발효예정) 태국('06 발효예정)	한국, 말레이시아	아세안, 인도네시아, 대만, 칠레, 캐나다 등

- 또한 일본은 타겟시장 '우회공략'의 일환으로 FTA를 활용
 - 태국과의 FTA 체결을 통해 자국과의 FTA에 소극적인 인도 자동차 시장 공략에 태국-인도 FTA를 활용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음.

- 태국은 일본과의 FTA의 목표를 수출시장 확보 차원을 넘어 일본 기업의 대태국 투자 등 장기적 태국 경제발전으로 잡고 있음.
- 최근 일본의 대태국 투자는 일본기업의 경영악화, 중국과 베트남 등 대체시장의 부상 등으로 감소추세가 이어졌음.
- 태국은 일본 기업의 대태국 투자가 향후 산업구조 고도화와 경제발전 전략에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판단
- 또한 태국은 주변국 및 경쟁국과의 FTA 체결을 자국 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제고에 활용하겠다는 구상
- 일본은 지난 '05.7월 발효된 중-아세안 FTA를 활용, 장기적으로 일본-중국-아세안의 3각축을 연결하는 산업별 최적생산기지 구축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전자산업계
 - 아세안과 중국은 일본 전자업계의 주력 생산기지
 - 전체 TV의 53.9%, VTR/DVD의 86.0%, HDD의 97.1%를 아세안 및 중국에서 생산
 - 생산거점별 특화전략
 - 규모의 경제를 위해 유사제품의 생산을 특정 국가로 통합
 - 전자부품 생산은 중국에 비해 아세안이 더 유리(숙련된 기술 인력 보유)
 - 중국-아세안을 연결하는 통합 생산기지 조성
 - 중국의 거대 내수시장 및 저렴한 임금 + 아세안의 기술력

○ 일본의 자동차 산업계

- 역내 조립생산 고도화

- 태국 및 인니 내 자동차생산에 필요한 부품을 전량 아세안 역내에서 조달

- 지역별 특정 품목 전문 기지화 (토요타 사례)

국가명	주요 생산부품
태국	디젤엔진, 바디판넬
말레이시아	핸들, 와이퍼
필리핀	기어, 유니버설조인트
인도네시아	가솔린엔진, 도어락

- 중국 및 아세안 역내 생산제품의 세계 수출확대 전략

- 아세안 역내 부품조달 및 완성차 생산을 통한 경쟁력 획득
- 중국 내 생산설비 확대

□ 우리나라는 주변 경쟁국들의 지역경제블록 형성 및 활용에 전략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

○ FTA를 비롯한 지역경제블록이 강화됨에 따라 역외국에 대한 차별사례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 현재 추진 중인 한-아세안 FTA, 한-일 FTA 등도 이러한 관점에서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가져야 할 것으로 판단

○ 아울러 기 체결된 FTA와 향후 추진예정 FTA 간 상호 시너지 및 보완관계를 분석, 우리나라 산업과 수출에 실질적 이익이 나타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임.